

국민 62.3% “공직부패 심각”...국회 1위

국민 10명중 6명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패 기관 1위로는 국회(입법부)가 꼽혔다.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2.3%였다.

국민들이 전혀 또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국회’가 89.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중앙정부부처 79.9%, 검찰·법원 등 사법부 75.0%, 지방자치단체 66.1% 순이었다.

대기업이 청렴하지 않다고 밝힌 비율은 71.8%였다. 시민단체에 대해 청렴하지 않다고 본 비율은 55.8%로 공공부문 보다는 낮았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령층보다는 젊은층이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고소득층보다는 중·하위소득계층이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남성의 부패인식 평균 값은 3.13점으로 여성의 3.05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패 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값은 낮아졌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부패인식 평균 값은 3.11점으로 고졸 학력자(3.10점)나 중졸 이하 학력자(2.94점)보다 높았다. 관리직과 전문직의 부패인식 평균 값이 각각 3.13점, 3.26점으로 농림어업직(3.0점)과 단순노무직(2.88점)에 비해 컸다.

월 10만원 미만 소득집단의 부패인식 평균 값이 3.15점으로 월 400만~500만원 미만의 3.13점보다 높았다.

반면 공무원들이 자기 집단에 대한 부패 경험 비율은 3.9%로 국민 인식과는 괴리가 컸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전국 156개의 지진 관측소로 구성된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었다.

법률이 정한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개 중 43.7%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는 23.1%만 내진 성능이 확보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량 중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율이 2015년 기준 70.5%에 달했다.

전력 소비는 산업용(56.6%)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반용 21.4%, 주택용 13.6%, 기타 8.4% 순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2005~2014년 10년 간의 산업용 열량가격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력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4만종이 넘었고, 매년 2000여종이 신규 등장하는데도 금지·제한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발표

男>女·젊은이>노인 부패인식 더 강해

물질을 지칭되는 것은 72종에 불과했다. 화학물질 유통량은 2014년 기준 연간 약 5억이였다.

생활화학제품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652건으로 1년 전(432건)보

다 50.9%나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집착제(25.5%), 표백제(18.0%), 세정제(12.9%) 순이었다. 피해 연령대는 10세 미만이 가장 높았다.

한편 아동학대는 2012년 66.1건에

서 2015년 130.7건으로 급증했다.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79.8%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도 12.2%나 됐다.

아동학대 유형 중에는 중복학대(45.6%)가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2011년 7.7%→2015년 16.1%)가 늘고 방임(2011년 26.8%→17.2%)은 줄었다.

뉴스스



2017 월드기네스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16일 서울 구로구 교척스카이돔에서 CTS기독교TV와 뮤직홈 음악연구소가 주최한 ‘2017 월드기네스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에서 8076명이 합동으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다. 이날 열린 연주회는 단일장소, 최대 인원 세계 최대 규모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로 세계 기네스 기록 도전에 성공했다.

초등생 ‘생존수영’ 의무화...2020년까지 전학년 확대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5학년생을 상대로 실시하던 생존수영이 2020년까지 1~6학년으로 확대된다. 안전교육 전문 인력은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안전교육을 안전관련 종사자나 학교 교육 중심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2022년까지 5년간 단계별 추진하는 게 골자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관별 ‘2018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사람중심·생명중심의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대 분야 15개 과제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

우선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현재 3~5학년에서 2020년까지 전 학년으

로 확대해 어린이 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수상안전 능력을 키운다.

유·초·중·고등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연간 51시간 이상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는 현재 75점에서 80점으로 높이는 게 목표다.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산업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43개 소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또 2021년까지 전국에 안전체험관을 22개(행안부 8개·교육부 11개·국토교통부 1개·해양수산부 2개) 신규 건립한다. 이를 통해 연간 체험교육 인원을 지난해 총인구 기준 5.6%인 289만명에서 매년 20%씩 확대해 2022년 703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엔 이동형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5년간 100개 시·군·구에서 35만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산업부에선 전기·가스 안전체험, 해양경찰청에선 연안사고·바다생존체험 등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교육 담당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1만명 양성한다. 그동안 안전교육 담당 인력은 전문인력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안전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안전교육 교과목을 개설·개발해 정식 교과목으로 활용할 ‘안전교육 특성화대학을 육성하고 ‘안전교육사(가칭)’ 국가자격증을 신설한다.

안전 교육기관도 전국 17개 시·도에 100개 이상 지정·육성한다. 현재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필요한 안전영역 교육은 68개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기존 68개 영역뿐 아니라 장애인, 외국인 노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으로 개발·보급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발생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나이가 어긋도록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中 신장위구르서 학생 등수 만명 실종

이집트에 다녀온 뒤 중국 공안에 끌려간 위구르족 학생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의 이웃과 한 반 친구들 그의 어머니조차 알지 못한다. 그의 모친은 “아들이 살아있는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위구르족 학생의 친구들은 그가 다른 수만명의 실종자들처럼 어떤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 이념 주입을 위한 비밀수용소로 보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는 지난 해부터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가 극단적 이슬람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해 이 지역에 이념 주입을 위한 비밀수용소를 설치하면서이다.

이때문에 이곳은 공포가 지배하는 경찰국가로 변모했다. 신장의 많은 도시들에 사상 유례 없는 많은 경찰들이 배치됐다. 위구르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감시의 눈초리가 따라붙어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본다.

AP 통신은 최근 중국을 떠난 십여명의 위구르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구르에 확산되고 있는 공포의 경찰국가 실상을 파악했다. 이들은 한결 같이 남아 있는 가족들이 당국의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학생의 이름도 밝힐 수 없었다.

신장 지방정부는 AP 통신의 거듭되는 논평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 대한 치안 강화는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차역 흉기 난동 사건을 포함해 2013년과 2014년의 잇따라 테러 공격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허토펬(和田)시 선철실의 바오창후이는 “치안을 강화하지 않았으면 몇년 전과 같은 테러 공격이 줄을 이어 수백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비밀수용소가 직업훈련을 위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목적은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넘게 이어지는 수용 기간 중 수용자들은 종종 간 통합과, 극단주의 탈피, 애국심 등을 교육받는다.

신장 남부 쿠얼레(庫爾勒)의 한 수용소를 직접 찾아가 AP통신 기사는 지구상에서 경찰의 감시가 가장 심한 곳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칠레 남부에서 진흙 산사태로 3명 사망

칠레 남부 로스 라고스 지역의 한 마을에서 16일 새벽(현지시간) 심한 폭우로 진흙 산사태가 일어나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실종되었다고 칠레 내무부가 발표했다.

내무부 마드루드 알로이 차관은 산타루치아 마을에서 최소 3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여성 2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관광객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집중 호우로 불어난 강물이 범람하면서 산 한쪽이 무너져 이 마을 200채의 주택 중 20채가 파손되었다. 마을 위치는 수도 산타루치아에서 남쪽으로 127km 지점이다.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 지역에서 긴급구조 인력이 일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부상자들은 구조 헬기로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말했다.

美 플로리다주 주택가에 이구아나 ‘득실’

미 플로리다주의 이구아나들이 동면을 위해 땅굴을 파면서 주택가 내부의 화장실에 나타나거나 값비싼 하수도관들을 파괴하면서 플로리다주 당국이 이구아나 떼의 폭증을 막기위한 대책에 나섰다.

플로리다주 어류및 야생동물 보호 위원회는 플로리다 키스만 일대의 공용지에 살고 있는 이구아나의 개체수 폭발을 막기 위해 뱀잡이 전문가들을 고용해 이를 잡아 제거하기로 했다고 ‘미에이비 해럴드’ 신문에 보도했다.

이구아나는 1960년대부터 플로리다주에 출현하기 시작했지만 야생동물국 외래종 담당 크리스틴 쇼머스는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인류와의 전쟁’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구아나들은 도로변을 파괴하고 소빙 물에 갑자기 등장하는가 하면 골프장에서는 아주 흔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키스 일대에서는 자연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내비들처럼 점점 감소하는 종에게 아주 중요한 각종 식물들을 먹어치우기도 한다. 게다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새로 설치한 이 지역 하수관 시설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구아나는 또 수영장 물에 배변을 함으로써 살모넬라 균을 퍼뜨릴 수도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포경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